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력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의 사상중시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의 강화와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중앙과 지방의 선전일군들과 혁명사적, 출판보도,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초급선전일군들, 조선로동당, 무력,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1일회의가 24일 진행되였다.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일환, 룡해운성 당위원회 책임비서 천광식, 리정남이 사업하는 종합식료가공공장 초급당부비서 김택렬, 법동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 강계시당위원회 비서 김원호, 상업성 초급당비서 안재용, 로동신문사 론설원 송미란,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만수대창작사 단장 김호성, 청진시당위원회 비서 황명철, 신천군 우산협동농장 부문당비서 우인영, 제남탄광 초급당비서 한학중, 고원철길대학습강사 리영도, 량강도당위원회 비서 김재영, 함흥시 동흥산구역당위원회 비서 한도집, 유원지총국 당위원회 비서 리현철,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비서 리형철이 토론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2일회의가 25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백두산대국의 영



원한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높이 추켜드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당사상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계속되였다. 삼지연혁명사적관 파장 강정옥,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림경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류도홍,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 리경진, 안주시당위원회 비서 황상철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력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대회장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대회참가자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서 전환적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대회합을 마련해주시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폐회사를 하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만세》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당사상일군으로서의 사명감과 영예를 깊이 자각하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듯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력사에서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이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상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당사상전선에서 사상포문을 일제히 열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천만군민을 총결기시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과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사진척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중량부재들과 골조공사가 끝난 건물들을 보시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이것이 바로 단숨에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장을 바라보니 벌써부터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보는것만 같고 물고기떼가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를 건설할것을 결심할 때 그 무엇이든 말기면 못해낸 일이 없는 인민군대가 떠올랐다고, 그래서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긴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건설장에서 창조되는 기적과 혁신을 놓고보아도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선에 서있으며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로동당력사는 변혁과 창조의 시간으로 흐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건설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조국과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할 건축물을 자기들이 맡아 건설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립장에서 수산사업소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로동당시대의 걸작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것처럼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시대를 주름잡는 룡마의 기수들답게 력사의 한페지를 남기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이 들썩이게, 부글부글 끓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건설이 끝난 즉시 어로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선장, 어로공모집과 그들을 만능어로공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잘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공사를 제기일에 훌륭히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수족관, 조류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겨울철조건에서도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맞받아 뚫고 나가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각과 식당

의 개건보수를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심어주는것과 함께 자립성을 키워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야영생활기간에 제손으로 밥도 짓고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수 있게 그에 필요한 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제친선소년회관의 설계가 특별히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야영생들이 이곳에서 영화와 여러가지 록화편집물도 마음껏 볼수 있게 최신식영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들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넓고 시원하게 닭아놓은 운동장을 보시고 룡상주로를 만들어주고 축구장바닥에 인공잔디까지 깔아주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이번에 야영소를 개건하면서 현대적인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관도 새로 꾸려주고있는데 야영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에 수족

관과 조류사도 새로 건설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야영소가 없을것이라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생들이 야영의 나날을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수 있게 그에 필요한 각종 전자유회시설들과 문화오락기재들도 당에서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사업은 올해 건설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떠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건설해야 한다고, 힘이 들어도 질적으로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몇몇이 넘겨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것은 아이들을 한평생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개건전투를 제기일에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